

도시텃밭 운영 프로그램이 참여자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태호* · 이인성**

*강원발전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Effects of the Urban Farm Program on the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Park, Tae-Ho* · Lee, Insung**

*Research Institute for Kang-W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urban farm program on the participants' sense of community. Three public urban farms in Seoul were selected and survey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he urban farm program on the sense of community were verified by a multifaceted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raction and sense of community between urban farms with and without regular programs. Program participants showed higher level of activity, interaction and sense of community compared to non-participants. Program participa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ath analysis. Seco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group, residential ownership and duration were important factors in the sense of community. This implies that urban farm programs should target house owners with long duration, in particular socially disadvantaged classes such as single-family and elderly household. Third, diverse cultural programs related to the regional society gained higher satisfaction than the simple agri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Urban Agriculture, Sense of Community, Urban Farm Program, Path Analysis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시텃밭 프로그램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서울의 3개 공공도시텃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텃밭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상호교제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도로 확인되었다. 지속적 프로그램이 있는 텃밭과 그렇지 못한 텃밭 사이에는 내부교제와 공동체 의식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프로그램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텃밭활동, 내·외부교제 및 공동체 의식을 보였고, 경로분석에서도 프로그램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점유, 거주기간, 참여인원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거주기간이 긴 자가점유자, 특히 1인 및 노인 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텃밭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농업교육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들은 도시텃밭의 공동체 의식 형성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도시농업, 공동체 의식, 도시텃밭 프로그램, 경로분석

Corresponding author: Insung L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2210-2744, E-mail: leeis@uos.ac.kr

I. 서론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건물옥상, 학교, 공공유휴지 등에 7,200개소(2,700ha)의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500만 명을 도시농업에 참여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연합뉴스, 2011), 도시텃밭 및 주말농장 활성화, 도시농업공원 조성, 도시건물녹화와 관련된 법률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짓는 농사'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도시농업이 가진 다양한 기능에 비추어볼 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근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텃밭농사를 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농업은 단순한 경작활동을 넘어서 농업활동에 기반한 생태교육, 도시환경의 보호 및 복원, 여가선용 및 건강 유지, 공휴지 재활용,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방치되어 있던 유휴지를 텃밭으로 만들어 환경을 개선하고, 신선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시민 삶의 질을 증진할 뿐 아니라, 도시의 유휴인력을 생산적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며, 생태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의 초석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의 효과이다. 도시농업의 생산적 여가활동은 텃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되며, 왜해진 도시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의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시텃밭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도시농업의 주된 장소인 도시텃밭은 친환경 영농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생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시문화를 형성하며,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농업의 공동체 활성화 효과와 관련하여 도시농업 활동, 특히 도시텃밭 프로그램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고,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들의 관계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간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용실태조사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도시농업의 공동체 활성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도시텃밭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의식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도시텃밭 프로그램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향후 도시텃밭 운영에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도시농업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도시농업에 관련된 연구들은 생산, 환경, 공동체 활성화 측면으로 구분된다. 먼저 생산적 측면에서의 도시농업의 가치를 검토한 연구로서, 최승(1988)은 도시농업을 이용하여 유휴자원과 유휴노동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고, 유병규(2000)는 근교 도시농업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업산업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장동현(2006)은 생산 측면에서 도시농업이 소멸위기에 있으며, 이를 계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환경적 측면에서 김수봉 등(2002)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구조 변화와 정부지원, 전문단체 등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임효선(2011)은 도시농업을 매개로 한 녹지 확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 꾸준한 유지관리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윤정(2011)은 도시농업이 운송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주목하고 저감량을 산출하였다.

도시농업이 과거 단순한 영농활동에서 생태회복과 환경교육 및 공동체회복으로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도시농업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권광식(2005)은 도시농업을 도시 생태공동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고, 3R(reduce, recycle, reuse) 영농, 노인과 주부 등 유휴인력의 참여, 주민-협동조합-정부로 구성된 협동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소현정(2008)은 도시농업의 행위자인 정부, 시민, 시민단체들의 연계를 향상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과 행정력, 시민단체의 정보와 인력, 시민들의 참여의지 등 물질·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재순(2009)은 도시농업이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았으며, 임미정(2011)은 도시텃밭 이용자들이 텃밭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도시텃밭을 커뮤니티 육성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도시농업의 효과는 도시환경회복, 자원순환, 생태교육,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효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폐자재와 음식 쓰레기를 활용한 자원순환은 환경회복에 기여하고, 도시텃밭에서의 생태교육과 폐기물 및 유기물의 순환 활동은 소외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복지의 효과를 거두며, 생산적 여가활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접촉이 증진되어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최근 관련 연구들은 도시농업이 공동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농업의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고, 활성화 방향에 대한 모색도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분석의 틀에 근거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민 대상의 생활농업으로, 거주지 주변 텃밭에서 친환경 농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도시환경을 회복하며, 참여자들의 공동체의식을 증진하는 지역활성화의 기초활동”으로 정의하고, 도시농업의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농업이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연대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며, 구성원들의 결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齊藤廣子,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텃밭에서 관리조직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양한 요인들이 공동체의식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시농업의 공동체 활성화 효과에 대한 구조화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농업과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공동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공동체 구성요소와 공동체의식의 측정방법의 도출이었다. MacIver(1917)는 공동생활권이라는 개념으로 공동체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는데, 그는 공동체를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모태적 사회로 보았으며, 공동체 성립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지역성과 공동체의식을 꼽았다. Hillery(1955)는 94개의 공동체 정의를 분석하여 지리적 영역, 연대의식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공동체 형성의 기본요건으로 보았다. Ross(1958)와 Davies and Herbert(1993)는 지역성, 상호작용, 집단적 정체성과 더불어 구조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실체로 존속하려 하는 유기체적 속성(역동적 변화)을 공동체의 기본요소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공동체의 구성요인을 물리적(공간적) 요인, 사회적 요인, 연대의식, 자족성(유기체적 속성)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물리적 요소는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지역성이며, 사회적 요소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웃 교류나 협동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연대의식은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안정감 또는 일치감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적 가치, 신념, 목표를 포함하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관된다. 연대의식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며, 어떠한 집단이라도 공동의 연대

의식이 없으면 공동체라고 부를 수 없다. 자족성은 역동적 변화와 유기체적 속성에 관련되며, 공동체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각종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장소공동체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관심공동체로 구분되는데(Glynn, 1981), 전통적으로 계획 분야에서는 근린지구 등에 기반한 장소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이를 형성하는 방법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탐색의 핵심으로 부각된 개념이 공동체의식이다. 공동체의식은 개방성과 민주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연대의식 또는 집합의식을 의미한다(이종한과 김혜숙, 1997).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Glynn(1981)의 6개의 요인을 바탕으로 한 측정도구, Bardo(1976), Doolittle and Macdonald(1978), Mcmillan and Chavis(1986), Buckner(1988), Skjaeveland *et al*(1996), Long and Perkins(2003)의 척도 등이 그 사례이다. 그 중 Mcmillan and Chavis의 SCI(Sense of Community Index)가 공동체의식 측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McMillan and Chavis(1986)의 SCI는 욕구 충족, 구성원 의식, 상호영향, 정서적 연계를 구분된다(표 1 참조). 이들이 말하는 공동체의식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의식, 공동체와 자신이 상호작용한다는 의식, 공동체에서 얻는 물질적, 심리적 욕구의 충족감, 상호호혜성과 연대의식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으로 구성된다.

공동체 연구에서 McMillan and Chavis의 SCI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이 척도가 기존도시 및 계획도시, 직장, 종교, 이민 사회, 학생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에 적용 가능하며, 실증적으로 검증된 이론적 기초로부터 도출되어 정교한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Obst and Whit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Mcmillan and Chavis의 SCI가 공동체의식 측정에 적합한 척도로 판단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표 1. McMillan and Chavis의 공동체의식 측정항목(SCI)

구성요소	측정 항목 (5점 리커트척도)
욕구 충족	1. 우리 동네는 내가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2. 이 동네의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3. 우리 이웃과 나는 동네로부터 같은 것들을 원한다.
구성원 의식	4.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5. 나는 이 동네를 집과 같이 느낀다. 6. 나를 아는 이웃들이 매우 적다.
상호영향 의식	7. 나의 행동에 대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인다. 8.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9. 이 동네에 문제가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
정서적 친밀감	10. 이 특별한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11. 이 동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 12. 나는 이 동네에 오래 살기를 바란다.

III. 연구의 과정 및 방법

1. 연구의 과정

연구의 과정은 도시텃밭의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및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2011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도권의 도시농업 현황과 도시텃밭 관리조직 및 공동체 특성과 활동이 파악되었다. 특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텃밭보급소, 그린플러스, 도시농업네트워크 등에 대해서는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활동내용을 조사하였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3개 공공도시텃밭이 설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도시농업, 특히 텃밭 프로그램 운영이 공동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2011년 10월 초에서 11월 중순까지 조사대상지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가 분석되었다.

2. 연구 대상지

연구 대상지는 수도권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이 인구밀도와 도시화비율이 높아서 도시농업의 필요성이 크고, 도시농업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와 14개 자치구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표 2 참조), 그 중 강동, 구로, 도봉, 송파구가 공공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시텃밭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근린생활권에 만든 텃밭이다. 도시농업 지원단체들은 표 3과 같은데, 텃밭보급소, 그린플러스, 서울과 인천의 도시농업네트워크 등의 활동이 활발하다. 텃밭보급소는 강동구 도시텃밭과 수도권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린플러스는 송파구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농업네트워크는 도시농업교육, 상자

표 2. 서울시 도시텃밭 현황

운영조직	도시농업 현황
서울시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둔촌동, 암사동도시텃밭
구로구	항동, 옥길동 도시텃밭
광진구	양평 문호리 주말농장
금천구	시흥동 주말농장
노원구	주말농장 (공릉2동)
도봉구	쌍문동 나눔텃밭
동작구	광주시 주말농장
서대문구	양주시, 고양시 주말농장
서초구	양재천 고향논
송파구	솔이텃밭
양천구	주말농장, 안양천 자연학습장
은평구	서오능 동심주말농장
중랑구	신내동 배밭

텃밭 보급, 교육농장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구로구를 제외하고, 강동구 둔촌동텃밭, 도봉구 나눔텃밭, 송파구 솔이텃밭 등 세곳의 공공도시텃밭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을 공공도시텃밭으로 한정된 것은 물리적 환경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도봉구 나눔텃밭(그림 1 참조)은 면적 7,176m², 370구좌로, 휴게소, 주차장, 관수시설, 농기구대여소를 갖추고 있다. 특별한 관리주체는 없으며,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 봄철 텃밭 개장식 농사교육이 실시되고, 음악회와 나눔행사 등이 열리기는 하지만,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는다.



그림 1. 도봉구 나눔텃밭(필지촬영)

강동구 둔촌동텃밭(그림 2 참조)은 9,625m²의 면적에 380구좌가 조성되어 있다. 텃밭보급소가 운영하며, 도시농부학교가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사무소, 휴게소, 관수시설, 농기구대여소, 퇴비통, 지렁이사육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 텃밭을 관리하는 텃밭보급소는 도시농업 인식 제고와 도농교류, 농촌 살리기를 지향하는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산하단체로,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농업 운동을 시작하였고, 도시농부학교 운영, 상자텃밭 보급, 텃밭보급원 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농부학교와 텃밭보급원 교육에는 2011년까지 4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텃밭보급소는 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 및 비닐피복 금지 등 4원칙과 자가 거름 만들기, 토종 종자와 전통농업 살리기, 공동체운동 등 3지향을 내세우고 있다.

표 3. 수도권 도시농업 지원단체 현황

	운영조직	주요활동
민간기관	텃밭보급소	강동구텃밭, 주말농장 운영, 도시농업교육
	그린플러스	솔이텃밭 운영, 도시농업교육, 문화프로그램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 검암역 텃밭 운영, 도시농업교육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남동주말농장과 부평도시농업공원 운영, 도시농업교육
텃밭공동체	강동 시민연대	강동 시민연대 생태텃밭 운영
	광진 시민연대	광진 시민연대 텃밭 운영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주말농장 운영
	이웃랄랄라	이웃랄랄라 텃밭 운영
	문래도시텃밭공동체	문래도시텃밭 운영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주말농장 운영
	용산도시농업공원추진위	용산텃밭 운영, 마을기업, 도시농업공원 추진



그림 2. 강동구 둔촌동텃밭(필자촬영)

송파구 솔이텃밭(그림 3 참조)은 면적 5.315m²에 268구좌가 조성되어 있고,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전문가가 상주 관리하며 도시농부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이 텃밭을 관리하는 그린플러스는 2010년 서울그린트러스트, 대학연구소 및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농업 기업이다. 그린플러스는 송파구와 MOU를 체결하고, 솔이텃밭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교육, 문화프로그램, 텃밭 지도사 양성, 상자텃밭 보급, 주부 일자리 만들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텃밭보급과 텃밭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한 순환형태를 이루는데, 상자텃밭은 사람들을 텃밭으로 유인하고, 농업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은 도시텃밭 공동체를 양성하며, 이 공동체는 그린플러스의 중계로 지역공동체로 발전한다.



그림 3. 송파구 솔이텃밭(필자촬영)

조사대상지는 모두 공공도시텃밭이지만 관리주체와 운영 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있다. 도봉구 텃밭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며 상설 프로그램이 없으나, 강동구 텃밭과 송파구 텃밭은 각각 텃밭보급소, 그린플러스 등 전문 관리주체가 따로 있고,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강동구 텃밭의 프로그램은 농업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송파구 텃밭은 농업교육 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 도시텃밭들은 이러한 관리주체와 운영 프로그램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텃밭 프로그램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설문조사의 변인 구성

개인특성	텃밭활동	물리적 요인 (텃밭환경)	자족성 (프로그램참여)	사회적 요인 (내·외부교제)	연대의식 (공동체의식)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자가점유, 거주기간	참여유형, 참여자수, 이용빈도/시간, 이동시간	접근성(3문항), 쾌적성(3문항) 안전성(3문항), 편의성(2문항)	참여여부, 만족도 향후참여의향	내부교제(4문항) 외부교제(2문항)	육구충족(3문항), 구성원의식(3문항) 상호영향(3문항), 정서적친밀(3문항)

3. 설문 설계 및 조사 분석

설문은 표 4와 같이 구성되었는데, 앞서 검토한 공동체 구성요소인 물리적 요인(텃밭환경), 사회적 요인(내·외부교제), 자족성(프로그램참여), 연대의식(공동체의식)에 관련된 항목과 응답자 개인특성 및 텃밭활동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텃밭환경에 관하여 접근성(가까움, 교통편리, 출입구), 쾌적성(경관, 유지관리, 악취), 안전성(범죄위험, 안전시설, 재난안전), 편의성(시설편의, 시설상태)에 대한 11문항이 질문되었고, 내부교제 4문항(텃밭이용자의 교제, 대화, 농산물교류, 농사협조)과 외부교제 2문항(동네이웃과의 교제, 농산물교류)이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참여에 대해서는 참여여부, 만족도, 참여의향이 질문되었고, 공동체의식에 관해서는 Mcmillan and Chavis의 12문항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척도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개인특성인 성별, 연령, 소득 등 6개 문항과 텃밭활동의 참여유형(동행자), 참여자 수, 이용빈도, 체제시간, 이동시간 등의 문항들도 설문에 포함되었다.

2011년 10월 초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이 보완되었으며,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조사는 텃밭활동이 집중되는 주말의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충분한 표본 확보를 위해 조사시간에 텃밭활동을 하는 이용자 모두를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 중 각 텃밭에는 2명의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투입되어 텃밭별로 60~70명의 이용자를 조사하였고,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질문을 설명하고, 답변을 받아 적는 형식의 대면면접방식이 사용되었다.

설문의 결과 분석에는 통계프로그램 SPSS v.18과 AMOS v.18이 이용되었다. t-검증, 분산분석, 상관분석 등을 통해 텃밭관리조직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검토되었으며, 공동체의식과 영향요인들의 관계가 검증되었다. 또한 경로분석을 통해 도시텃밭에서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와 인과적 영향관계가 분석되고 종합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경로분석을 위하여 2장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공동체의식 형성모형의 틀을 설정하였다(그림 4 참조). 이 틀에서는 물리적 요인(환경), 자족성(텃밭활동 및 프로그램참여), 사회적 상호작용(내·외부교제), 연대의식(공동체의식)을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였는데, 텃밭환경과 개인특성을 1차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들에 의해 2차 요인인 텃밭활동 및 프로그램참여가 영향을 받고, 이들은 다시 3차 요인인 내·외부교제

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 복합적인 영향요인들이 결합되어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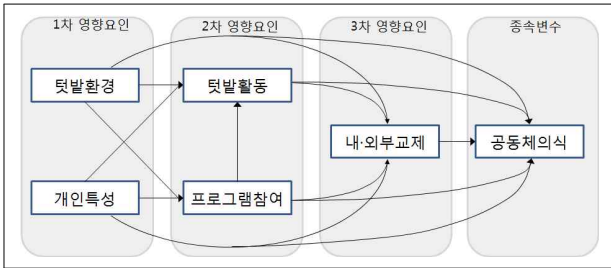


그림 4. 도시텃밭 공동체의식 형성모형의 틀

IV.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 특성

표 5의 응답자 개인특성을 보면 3개 텃밭 모두에서 여성 이용자가 남성보다 많고, 평균연령은 약 46세, 교육연수는 15년, 월평균소득은 24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의 고학력 중산층 여성이 도시텃밭 이용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가점유비율은 69%로, 텃밭별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평균 자가점유비율인 41%(통계청, 2010)보다는 월등히 높다. 거주기간은 강동(22년), 도봉(20년), 송파(14년)의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은 도봉이 다른 텃밭보다 낮다.

표 5. 텃밭별 응답자 개인특성의 평균

구분	도봉	송파	강동	전체
성별(여성비율, %)	51.6	55.9	59.7	56.0
연령(세)	45.6	45.3	46.7	45.9
학력(교육연수)	14.2	15.0	14.4	14.5
소득(만원/월)	214.5	255.9	255.6	243.1
자가점유비율(%)	82.2	61.8	63.9	68.8
거주기간(년)	20.2	14.4	22.4	19.0
응답자수(명)	62	68	72	202

표 6. 개인특성 분산분석

구분	평균	F (유의확률)	사후검증 (Scheffe)
소득	도봉 214.5	4.783 (0.009)	A
	송파 255.9		B
	강동 255.6		B
거주기간	도봉 20.2	12.243 (0.000)	B
	송파 14.4		A
	강동 22.4		B
자가비율	도봉 0.822	3.895 (0.022)	B
	송파 0.618		A
	강동 0.639		AB

표 7. 프로그램참여 분산분석

구분	평균	F (유의확률)	사후검증 (Scheffe)
프로그램 참여율	도봉 0.290	9.768 (0.000)	A
	송파 0.662		B
	강동 0.513		B
프로그램 만족도	도봉 2.45	58.882 (0.000)	A
	송파 3.77		C
	강동 3.24		B
향후 참여의향	도봉 3.74	2.208 (0.113)	-
	송파 3.76		-
	강동 3.57		-

표 8. 내·외부교제, 공동체의식 분산분석

구분	평균	F (유의확률)	사후검증 (Scheffe)
내부교제	도봉 2.75	3.345 (0.037)	A
	송파 3.12		B
	강동 3.05		AB
외부교제	도봉 3.47	1.236 (0.293)	-
	송파 3.72		-
	강동 3.61		-
공동체 의식	도봉 3.37	3.328 (0.038)	A
	송파 3.58		B
	강동 3.45		AB

대체로 성별, 연령, 학력 등에 있어서는 텃밭 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득과 거주기간 및 자가점유비율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표 6의 분산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는데, 성별, 연령, 학력에 있어서는 텃밭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득, 거주기간, 자가점유비율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의 결과를 보면 송파구 텃밭 이용자들은 도봉과 강동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도봉에 비해서는 자가점유비율도 낮다. 도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다.

2. 텃밭 간의 차이분석

조사대상 3개소 도시텃밭 응답자의 텃밭환경, 텃밭활동, 프로그램활동, 내·외부교제,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텃밭활동(이용빈도, 체류시간, 이동시간)과 텃밭환경의 평가(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에 있어서는 텃밭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프로그램참여율과 만족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7 참조). 상시 프로그램이 없는 도봉은 다른 두 텃밭에 비해 프로그램참여율이 낮았는데, 도봉은 프로그램참여율이 29%에 불과하지만, 강동은 응답자의 51%, 송파는 66%가 텃밭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만족도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송파가 가장 높았고, 농업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강동이 그 다음이었으며, 정기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도봉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내·외부교제와 공동체의식의 분산분석에서는 송파가 도봉에 비해 높은 수준의 내부교제와 공동체의식을 보였고, 외부교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8 참조).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3개소 텃밭 이용자의 개인특성과 텃밭활동이 비교적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관리조직이 있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송파에 비해 그렇지 않은 도봉의 내부교제와 공동체의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텃밭 관리조직의 차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가 내부교제에 차이를 가져오고, 공동체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된다.

3. 공동체의식과 영향요인의 관계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t*-검증과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텃밭이용빈도, 프로그램참여율, 프로그램만족도, 내·외부교제, 공동체의식 등에 있어서 유의수준 0.05에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모든 요인에서 여자가 높은 평균을 보였다(표 9 참조). 이러한 결과는 주부 등의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텃밭활동에 참여하며, 상호교제와 공동체의식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도시텃밭 활동이 주부 등 유희인력 활용과 여가활동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과 함께 자가점유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자가점유자는 이용빈도가 높고 체류시간이 길며, 프로그램참여율, 향후참여의향, 내·외부교제, 공동체의식에 있어서 비자가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는데, 이는 자가점유자가 공동체의식이 높고 공동체활동에 보다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텃밭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해 보면(표 11 참조), 이용빈도, 체류시간, 프로그램만족도, 향후참여의향, 내·외부교제, 공동체의식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참여자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텃밭프로그램이 텃밭활동을 촉진하며, 참여자의 교제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영향요인들의 상호관계를 1차 영향요인과 2·3차 영향요인으로 나누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12의 상단부는 1차 영향요인과 2·3차 영향요인의 상관계수인데, 개인특성 중 참여인원, 거주기간, 이동시간이 2·3차 요인들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거주기간은 텃밭활동 및 프로그램참여, 내·외부교제 및 공동체의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이동시간과 참여인원은 부(-)의 관계를 보인다. 이는 이동시간이 길면 텃밭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며, 참여인원이 많은 가족단위 참여자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프로그램참여와 교제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또한, 텃밭프로그램이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적은 계층의 사회활동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텃밭환경에 관련된 항목들은 모두 2·3차 요인들과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텃밭환경에 관련된 이용자의 인식이 텃밭활동 및 프로그램참여, 내·외부교제 및 공동체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의 하단부는 2·3차 영향요인들 상호간의 상관관계분석의 결과이다. 프로그램참여와 텃밭활동은 내·외부교제와 공

표 12. 영향요인과 공동체의식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프로그램참여 (2차)		텃밭활동 (2차)		내·외부교제 (3차)		공동체의식 (종속)	
	만족도	참여의향	이용빈도	체류시간	내부교제	외부교제		
개인특성 (1차)	연령	-0.012	0.124	0.136	0.005	0.156	0.115	0.092
	학력	0.065	-0.135	-0.170	0.000	-0.043	-0.176	-0.104
	소득	0.264	0.219	0.111	-0.082	0.170	0.141	0.249
	참여인원	-0.035	-0.265	-0.478	0.078	-0.367	-0.403	-0.322
	거주기간	0.041	0.242	0.261	0.105	0.411	0.567	0.403
텃밭환경 (1차)	이동시간	-0.303	-0.429	-0.435	-0.178	-0.386	-0.338	-0.418
	접근성	0.272	0.504	0.473	0.187	0.472	0.444	0.441
	쾌적성	0.164	0.506	0.388	0.120	0.386	0.367	0.446
	안전성	0.288	0.200	0.250	0.164	0.290	0.284	0.341
프로그램 참여 (2차)	만족도		0.325	0.209	0.147	0.417	0.374	0.509
	참여의향	0.325		0.506	0.111	0.545	0.508	0.566
텃밭활동 (2차)	이용빈도	0.209	0.506		0.203	0.552	0.490	0.398
	체류시간	0.147	0.111	0.203		0.249	0.178	0.252
내외부교제 (3차)	내부교제	0.417	0.545	0.552	0.249		0.728	0.698
	외부교제	0.374	0.508	0.490	0.178	0.728		0.644

■ : $p < 0.01$, ■ : $p < 0.05$

표 9. 성별에 따른 차이

구분	평균	<i>t</i> (유의확률)
이용빈도	남 2.55	3.531 (0.001)
	여 3.51	
체류시간	남 60.93	1.583 (0.115)
	여 55.78	
프로그램참여율	남 0.371	3.198 (0.002)
	여 0.593	
프로그램만족도	남 2.98	2.793 (0.006)
	여 3.32	
향후참여의향	남 3.63	1.232 (0.220)
	여 3.73	
내부교제	남 2.75	3.561 (0.000)
	여 3.17	
외부교제	남 3.44	2.301 (0.022)
	여 3.74	
공동체의식	남 3.33	3.667 (0.000)
	여 3.57	

n: 남 89, 여 113

표 10. 자가점유에 따른 차이

구분	평균	<i>t</i> (유의확률)
이용빈도	자가점유 3.52	5.436 (0.000)
	비자가 2.14	
체류시간	자가점유 61.62	2.842 (0.005)
	비자가 52.14	
프로그램참여율	자가점유 0.619	5.912 (0.000)
	비자가 0.222	
프로그램만족도	자가점유 3.22	1.186 (0.238)
	비자가 3.06	
향후참여의향	자가점유 3.86	6.548 (0.000)
	비자가 3.32	
내부교제	자가점유 3.16	4.445 (0.000)
	비자가 2.60	
외부교제	자가점유 3.81	4.883 (0.000)
	비자가 3.17	
공동체의식	자가점유 3.57	5.061 (0.000)
	비자가 3.23	

n: 자가점유 139, 비자가 63

표 11. 프로그램참여에 따른 차이

구분	평균	<i>t</i> (유의확률)
이용빈도	참여 4.04	7.679 (0.000)
	불참 2.16	
체류시간	참여 67.20	5.398 (0.000)
	불참 50.29	
프로그램만족도	참여 3.66	9.498 (0.000)
	불참 2.69	
향후참여의향	참여 4.02	9.235 (0.000)
	불참 3.36	
내부교제	참여 3.63	15.116 (0.000)
	불참 2.36	
외부교제	참여 4.12	9.483 (0.000)
	불참 3.11	
공동체의식	참여 3.77	11.744 (0.000)
	불참 3.17	

n: 참여 100, 불참 102

동체의식에 강한 상관성을 보이며, 프로그램참여와 텃밭활동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 텃밭활동보다 프로그램참여가 내·외부교제와 공동체의식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내·외부교제는 공동체의식과 더욱 강한 상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참여가 참여자의 내·외부교제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 자가점유, 텃밭환경, 텃밭활동, 프로그램참여 등의 요인이 텃밭 이용자의 내·외부교제와 공동체의식에 비교적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3장에서 설정한 경로분석모형 등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공동체의식 경로분석

도시텃밭 공동체의식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장에서 설정한 분석의 틀에 근거하여 개인특성과 텃밭환경, 텃밭활동, 프로그램참여, 내·외부교제를 독립변수로,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인과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5는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경로모형이다. 그림에서 변수상자 위의 숫자는 결정계수(R²)이며, 경로선에 표시된 숫자는 독립변수의 표준화계수이다.

이 경로모형의 결정계수는 60.2%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적합도지수를 검토하였는데(표 13 참조),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지수

인 RMSEA는 0.06, TLI는 0.922, CFI는 0.965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치보다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GFI와 NFI, IFI 역시 각각 0.940, 0.932, 0.967으로 기준치보다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된다.

표 13. 모형의 적합도 분석

구분	NFI	GFI	IFI	TLI	CFI	RMSEA
수용기준	>0.9	>0.9	>0.9	>0.9	>0.9	<0.08
연구모형	0.932	0.940	0.967	0.922	0.965	0.06
모형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표 14는 각 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요인 간의 상호영향을 살펴보면, 1차 영향요인인 개인특성은 프로그램참여, 텃밭활동, 내·외부교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성별, 자가점유, 거주기간은 정(+)의 영향을, 참여인원과 이동시간은 부(-)의 영향을 보였다. 개인특성 중 자가점유(총효과 0.214), 거주기간(0.158) 및 참여인원(-0.118)의 영향력이 높는데, 자가점유는 내부교제, 프로그램참여 및 향후참여의향과 연관되고, 거주기간은 내·외부교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고 자가에 거주하는 도시텃밭 이용자가 프로그램참여율도 높고 상호교제에도 적극적인임을 나타낸다. 참여인원은 이용빈도와 공동체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1인 가구, 노인 가구, 주부 참여자 등과 같이 소수 단위의 이용자가 텃밭 이용빈도도 높고, 공동체의식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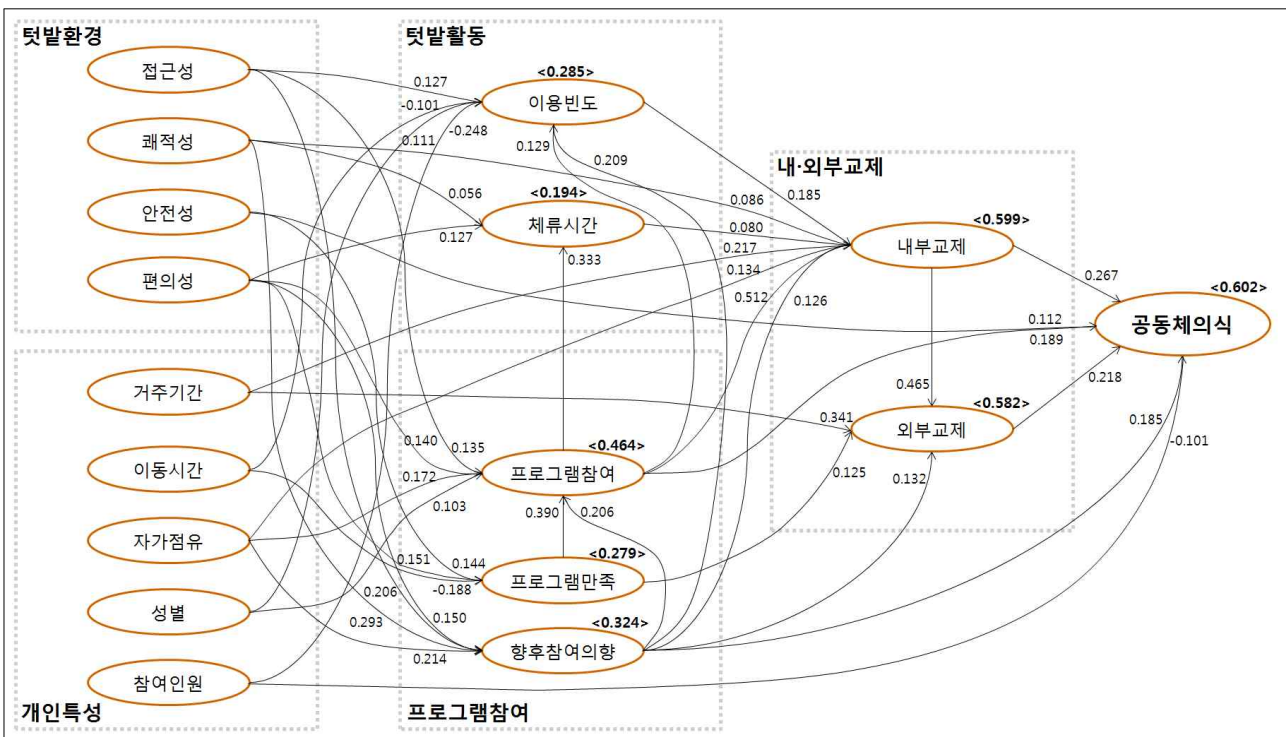


그림 5. 도시텃밭 공동체의식 경로모형

표 14. 각 요인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공동체 의식	개인특성	성별	-	0.041	0.041
		자가점유	-	0.214	0.214
		참여인원	-0.101	-0.017	-0.118
		거주기간	-	0.158	0.158
		이동시간	-	-0.040	-0.040
	텃밭환경	편의성	-	0.200	0.200
		안전성	0.112	0.026	0.138
		접근성	-	0.136	0.136
		쾌적성	-	0.084	0.084
	프로그램 참여	참여여부	0.189	0.211	0.400
		프로그램만족	-	0.183	0.183
		참여의향	0.185	0.171	0.356
	텃밭활동	채류시간	-	0.030	0.030
		이용빈도	-	0.068	0.068
내·외부 교제	내부교제	0.267	0.102	0.368	
	외부교제	0.218	-	0.218	

텃밭환경은 2·3차 요인 및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텃밭환경 변수 중 편의성(0.200)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며, 채류시간, 프로그램참여 및 만족도, 참여의향 등과 연관된다. 이에 비해 쾌적성(0.084)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는데, 이는 텃밭 이용자들이 텃밭활동에서 바라는 가치가 일반 공원녹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2차 영향요인인 프로그램참여는 개인특성과 텃밭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텃밭활동과 내·외부교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변수 중 프로그램참여여부(0.400)와 향후참여의향(0.356)이 여러 요인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데, 이는 텃밭 프로그램 활성화가 공동체의식에 강하게 연관됨을 확인해 준다. 텃밭활동도 내·외부교제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3차 영향요인인 내·외부교제는 공동체의식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며, 내부교제(0.368)는 외부교제(0.218)보다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다. 또한 내부교제가 강할수록 외부교제도 높아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내부교제에서 시작된 공동체의 연대감이 외부교제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변수들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총효과를 보면, 프로그램참여여부(0.400)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참여의향(0.356)과 내부교제(0.368)가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텃밭프로그램 운영이 내부교제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공동체의식 형성에 강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텃밭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 모형은 개인특성과 관련하여 거주기간이 긴 자가점유자와 여성 및 소수 단위의 참여자 중심으로 텃밭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중 도시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 역할에 주목하고, 도시텃밭 이용자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도시텃밭의 현황조사를 통해 관리조직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3개소의 공공도시텃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도시텃밭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텃밭프로그램 운영이 참여자의 상호교제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다각도의 분석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개인특성 및 텃밭환경과 텃밭활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관리조직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송파구 도시텃밭과 그렇지 못한 도봉구의 도시텃밭 사이에는 내부교제와 공동체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텃밭프로그램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텃밭활동, 내·외부교제, 공동체의식을 보였으며, 경로분석에서도 텃밭프로그램참여여부와 향후참여의향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텃밭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도시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둘째, 개인특성 중 자가점유, 거주기간, 참여인원이 공동체의식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이 긴 자가점유자와 작은 인원수 단위의 참여자, 특히 1인 가구나 노인 가구 등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적은 참여자들을 도시텃밭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계층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며, 또한 도시텃밭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 이들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른 복지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농업교육 프로그램만을 실시하는 강동구 도시텃밭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활동을 연계하고 있는 송파구 도시텃밭의 프로그램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텃밭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농업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도시농업은 도시환경 회복, 자원순환, 생태교육,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농업에 관련된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운영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물론 양적확대가 도시농업 활성화의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일임은 틀림없지만, 양적확대만으로는 도시농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원적인 가치를 달성할 수 없다. 도시농업의 궁극적인 가치는 도시공동체의 회복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변을 가꾸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일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도시농업의 공동체 의식 형성효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도시텃밭을 통한 공동체 형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더불어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텃밭의 운영조직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홍보함으로써 도시텃밭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해야 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도시텃밭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텃밭 내·외부교제와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며, 이러한 효과는 도시텃밭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시텃밭 관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조직만으로는 바람직한 텃밭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농업 거버넌스 시스템이 연구되고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도시텃밭의 공동체 의식 형성효과를 구조적인 틀에 기초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도시텃밭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이 보완 연구되어 도시텃밭이 도시환경회복과 생태교육의 효과와 함께 도시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용문헌

- 권광식(2005) 도시농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네트워크. 한국협동조합연구 10(1): 59-77.
- 김수봉, 조진희, 정용호(2002) 환경친화적 도시와 도시농업. 환경과학논집 7(1): 71-91.
- 소현정(2008)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2011) 2020년까지 도시텃밭·주말농장 8천개 조성. 2011.5.7.
- 유병규(2000) 도시 근교농업의 복합산업화와 공간 활용. 농촌사회 10: 37-70.
- 이윤정(2011) 도시농업에 의한 운송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환, 김혜숙(1997) 한국인의 지역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17: 19-39.
- 임미정(2011)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이용자의 인식조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선(2011) 녹지확충을 위한 도시농업의 조정적 전개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동현(2006) 생태지향형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승(1988) 도시농업을 이용한 공한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계순(2009)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가정의 공동체적 삶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41-51.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Bardo, J. W.(1976) Dimensions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a British new town. *Multivariate Experimental Clinical Research* 2(3): 129-134.
- Buckner, John C.(1988)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6): 771-791.
- Davies, W. K. D. and D. Herbert(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An Urban Social Geography*. London: Belhaven Press.
- Doolittle, R. J. and D. MacDonald(1978) Communication and a sense of community in a metropolitan neighborhood: A factor analytic examination. *Communication Quarterly* 26(3): 3-7.
- Glynn, T. J.(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 789-818.
- Hillery, George A. Jr.(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Long, D. A. and D. Perkins(200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ense of community index and development of a brief SCI.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279-296.
- MacIver, R.(1917) *Community: A Sociological Study: Being an Attempt to Set Out the Nature and Fundamental Laws of Social Life*. London: Macmillan.
- McMillan, D. and D. Chavis(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Obst, P. L. and K. M. White(2007) Choosing to belong the influence of choice on social identification and psycholog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1): 77-90.
- Ross, M.(1958) *Case Histories in Community Organiz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 Skjaeveland, O., T. Garling, and J. G. Maeland(1996)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neighbor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3): 413-435.
- 齊藤廣子(2004) コモンでつくる(住まい・まち・人：住環境デザインとマネジメントの鍵). 彰國社.

원 고 접 수 일: 2012년 7월 25일
 심사 일: 2012년 8월 27일(1차)
 2012년 9월 13일(2차)
 게재 확정 일: 2012년 9월 19일
 3인익명 심사필